“여러분이 변하면 반드시 스님들과 한국불교 변화”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대중공사’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결사 성공의 관건은 재가 종무원 각자의 주인의식”이라며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보현행원의 실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대중공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대중공사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기조와 추진계획, 화쟁위원회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법스님의 기조강연, 결사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법스님은 강연에서 “결사의 의미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오늘날의 불교가 입고 있는 낡고 때 묻은 옷을 갈아입자는 것”이라며 “종단 구성원 하나하나, 종단 전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낡았다고 느끼는 게 자성이고 이것을 벗어버리거나 깨끗이 빨아 입자는 게 쇄신”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2758호 2면 참조〉

아울러 “불교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외면하며 불교를 위한 불교, 종단을 위한 종단에만 연연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불교의 존재 이유는 중생의 안락과 행복, 세상의 안락과 행복”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참석한 재가 종무원들에게 관료주의와 패배의식을 떨쳐내고 나부터 결사를 시작한다는 대비원력의 발심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도법스님은 “스님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불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재가불자들의 이구동성”이라면서 “틀리지는 않지만 역시 때 묻고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결사본부장 도법스님

> “결사 성공의 관건은 재가 종무원 각자의 주인의식에 달렸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변하면 반드시 스님들과 한국불교가 변화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사가 시작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법적 기술적인 문제로 차후의 일이며 내가 결사의 주체이고 핵심이라는 주체적 자각과 확신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요지다.

도법스님은 “결사란 부처님이 뜻한 법대로의 길을 모두가 함께 가는 일”이라면서 “먼 훗날이 아닌 지금 여기, 특별한 수행이 아닌 삶과 생활, 일방적 추종이 아닌 대화와 토론, 특별하게 깨달은 뒤가 아닌 일상에서 즉각즉각, 총무원장 스님이나 여러 큰스님이 아닌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연에 이어 열린 브리핑에서 결사추진본부는 불교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개관하고 부처님의 정법에 입각한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무게를 둘 것임을 천명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민주화 이후 주어진 정치적 혜택 의존,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방기한 과보로 종단의 자립과 불교의 자존이 위태로워졌다”며 “종단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냉정히 성찰하고 대담한 목표와 결심으로 사부대중의 열정에 불을 당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5대 결사를 구성하는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의 가치를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재설정하고, 의제별 대중공사로 쇄신결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도 공지했다.

장영섭 기자

제2교구본사 용주사가 지난 10일 종단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군종교구 총무국장 지선스님,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총무원장), 용주사 부주지 성직스님(안양 염불사 주지).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용주사, 육군훈련소 군법당 기금 전달

전체 공정 50%진행 … 11월5일 상량식 예정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스님)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에 3000만원을 쾌척했다.

용주사 부주지 성직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에 사용해 달라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교구본사의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줘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용주사 부주지 성직스님은 “주지 스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돼 제가 대신 오게 됐다”면서 “뜻 깊은 일에 많이 동참하지 못해 죄송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내년 부처님오신날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는 전체 불사비 120여억 원 가운데 현재 73억 원이 모금돼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11월5일 오후2시 상량식을 갖는 호국연무사 건립불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오는 11월25일 오후6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군승의 날 및 후원의 날, 11월22일 오후3시 계룡대 호국사에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건립불사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음악템플스테이 ‘가을동화’ 개최

전통불교문화원 22~23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제2회 음악템플스테이 뮤직사워-가을동화(歌乙同畵)’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김이곤 유-클래식 음악감독의 ‘펀 펀 뮤직’으로 시작된다. 이어 ‘콘서트 휴’는 김이곤 감독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서활란 씨, 테너 김병오 씨, 바이올리니스트 김선희 씨 첼리스트 성승한 씨, 피아니스트 김수진 씨 등이 출연해 가을밤에 환상적인 선율을 들려주게 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故스티브 잡스의 스승’

〈1면에 이어〉

이와 함께 스님은 직관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같은 오토가와 코우분 스님의 생각은 “우리의 감각 기관은 전부 정밀하게 건설된 자각이다. 감각 기관에서 모든 정보들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의 눈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여러 종류의 직관을 느낀다.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확실히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오토가와 코우분 스님과의 교우는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집중(focus)과 단순(simplicity)이라는 점에 잘 나타나 있다. 스님으로부터 배운 경행(經行)과 자신의 본질을 찾는 명상 수행은 스티브 잡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동방학연구회 강사 오진스님은 본지에 보내 온 이메일을 통해 “오토가와 스님은 일본 동북 지방인 니이카타현 카모시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활약한 일본 조동종 소속 스님”이라며 “특히 애플사 스티븐 잡스가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해 그의 결혼식에도 초대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구미 해운사 법성스님 ‘더 프라미스’에 기금

“미얀마 교실 증축 열매 맺길”

해외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결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 해운사 주지 법성스님은 지난 7일 더프라미스 사무국에서 더프라미스 대표 법등스님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법성스님이 약 1년 동안 신도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법성스님은 직지사복지재단 구미지부 지회장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 매년 1000여 명의 노인을 초청해 만발공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추석에는 새터민 가정에 총 170포의 백미를 골고루 전달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직접 봉사자들과 함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연탄 3만장을 배달했다.

법성스님이 기부한 기금은 2012년 12월 완공되는 미얀마 딴린 지역 민가룬 학교 증축 사업에 쓰인다. 학교가 들어서면 중등교육과정이 없어 그동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240여 명의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더프라미스 대표 법등스님과 구미 해운사 주지 법성스님(오른쪽).

법성스님은 이날 “교실을 증축해 인재를 키우는 것은 나라 발전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법등스님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사업에 귀중한 기금을 보태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제구호활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2755호 2면 ‘통도사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 쾌척’ 기사에서 기금 전달일은 9월26일로, 2756호 7면 ‘한국불교중흥 대토론회’ 기사 중 전문과 인물사진 설명에서 ‘박태완 무심선원장’은 ‘김태완’으로, 2757호 14면 신간 〈참선요결〉의 저자를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로잡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는 포교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지난 2일 의정부에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유치원 4곳이 함께 모여 운동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행사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겸해 나온 가족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간식과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곳의 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는 어렵다. 4~50명 남짓의 원아들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4곳이 함께 하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단다.

이번 연합행사를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불교계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 많다. 또 자체 설립해 운영하는 시설까지 감안한다면 도시별로 몇 곳의 보육시설을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끼리 연합해 행사를 갖는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교사들은 불교시설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학부모들에게도 불교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법인체나 운영주체가 다른 불교계 복지시설간 연대해 어떤 행사를 갖는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때론 교계 시설간 경쟁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모여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의정부 불교유치원 연합운동회를 보면서 “포교는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할 때 더욱 잘 된다”는 당연한 말을 새삼 느끼게 됐다.

불기2555(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종단에서는 포교를 통하여 불교와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매년 포교대상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올해는 만해사상 실천을 통해 세계평화와 문화교류에 앞장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신 신흥사 조실 무산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해 오신 분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일 시 _ 불기2555(2011)년 10월 25일(火) 오후 3시

ㅇ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ㅇ포교대상 수상자

- 대 상(종 정 상) : 무산스님(3교구본사 신흥사)
- 공로상(총무원장상) : 정운스님(세원사), 김윤환(부산불교실업인회), 화계사(서울),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대표 구자선)
- 원력상(포교원장상) : 신공스님, 법연스님, 성불사(하남시), 김선근, 장미화, 김영란, 박명혜, 김귀경, 김동확, 김연우

ㅇ행사문의 _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02-2011-1891, 1916)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